

일간지의 여성인물 보도방식의 차이에 관한 연구

기자 성별과 조직 성비 요인의 영향력 분석*

김경모 · 김연정**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석사)

이 연구는 주요 일간지에서 기자 개인의 성별과 조직의 성비라는 두 요인이 여성인물의 보도에 어떤 차이를 유발하는지 검토하였다. 편집국의 기자 여성비를 고려하여 《문화일보》, 《조선일보》, 《한겨레신문》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남성기자보다 여성기자가 다양한 직업군의 여성인물을 더 심층적이고 긍정적으로 그린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여성인물 보도방식은 신문사 조직 수준의 여성비와도 관련 있었는데, 기자 여성비가 높은 신문에서 상대적으로 더욱 여성 우호적인 보도경향을 관찰할 수 있었다. 아울러, 편집국의 여성비 증가가 여성기자보다 남성기자의 보도방식에 더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여성의 언론계 진출 증가가 여성보도에 제기하는 함의를 논의하였다.

주제어: 기자 성별, 조직 성비, 성별과 성비의 상호작용, 여성인물 보도방식

1. 머리말

사회현실은 특정 환경과 조건에서 언어와 권력의 매개, 제작관행의 작용, 사회제도와 의 역학관계를 통해 게이트키퍼이라는 미디어의 조직적 의사결정과정을 거치면서 뉴스라는 상징현실로 재구성된다. 그런데 관점과 프레임에 따라 달리 구성된 뉴스현실은 실제와 다르다는 이유로 편파적이고 불공정하다는 논란에 휩싸이거나, 이데올로기로서 뉴스가 지닌 위력이 끊임없이

* 이 글은 한국언론정보학회 2004년 가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kkmo@yonsei.ac.kr · uki0000@hotmail.com

비판받는다. 뉴스는 단지 사회현실을 반영하는 거울이 아닌 것이다. 여성관련 뉴스 역시 마찬가지다.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전체 여성의 50%에 이르며,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지위와 위상이 점차 높아가는 현실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중매체 뉴스에서 나타나는 여성 이미지의 왜곡 또는 과소표상은 불공정 논란을 넘어서 우리 사회에 성차별 이데올로기를 고착시키는 위험성을 유포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받는다.

여성관련 뉴스에 관심을 갖는 선행연구들은 대중 매체의 보도 내용이 차별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을 심어주면서 현대 여성들의 가치관과 역할 정립에 갈등을 유발하고 여성들의 지위를 악화시킨다고 우려한다. 예를 들어, 5대 중앙일간지에 실린 여성관련 기사를 분석한 신문모니터위원회의 최근 보고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해 우리 언론은 ‘남편은 직장 생활을 하지만 주부는 돈벌이에 뛰어들 것’이라든가 ‘주업이 아닌 부업’이라는 식으로 보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은 결국 여성의 저임금을 합리화시키는 성차별 이데올로기로 작용한다고 비판받는다(신문모니터위원회, 2004).

자유주의 페미니즘 관점에서 매체 속의 여성문제를 조명하던 일단의 연구자들은 미디어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또 지위가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여성 이미지가 덜 왜곡될 것이며, 그 결과 양성평등의 사회적 구현에 미디어가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저널리스트 Mills(1989)는 실제로 여성기자의 증가가 뉴스내용과 뉴스대상의 범위에 변화를 가져오고, 뉴스생산과정과 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디어 조직 또는 사회구조적 요인들로 인해 여성의 언론계 진출이 여성의 이미지를 왜곡하거나 주변화시키는 뉴스내용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주장들도 결코 만만치 않다(Liebler & Smith, 1977; Tuchman, et al., 1978; van Zoonen, 1988). 이처럼 논쟁적인 현실은 여성관련 뉴스와 여성 언론인의 관계에 주목하는 연구가 더욱 정교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여성의 저널리즘 분야 진출이 활발해지고 지위 또한 향상됨에 따라 여성

관련 보도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진단하려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주요 일간지에서 기자 개인의 성별 요인과 조직의 성비 요인이 여성인물의 보도방식에 어떤 차이를 유발하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연구자는 뉴스 메이커로서 여성을 묘사할 때 여성기자가 남성기자보다 가부장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더 벗어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나 뉴스 속에서 여성이 상징적으로 소멸되는 원인을 기자 성별이라는 개인 요인으로 돌리는 것은 구조적 요인의 영향을 간과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여성인물의 보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직구조 요인으로 신문사 조직 수준의 기자 성비를 함께 고려한다.

2. 선행연구 검토

1) 뉴스와 젠더

뉴스의 현실 구성론 관점에 따르면, 뉴스의 젠더구조는 현실을 반영하는 객관적인 묘사라기보다 가부장적인 사회질서에 따라 구성된 비대칭적 권력 관계의 표상으로 나타난다. 뉴스는 우리 사회가 공유하는 성차별적 질서에 근거한 지배적인 젠더의 의미와 젠더의 사회적 실천을 상징적으로 표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함으로써 끊임없이 재확인시킨다(김훈순, 1997; 2004).

전통적으로 신문은 여성에 대해, 그리고 여성관련 뉴스에 대해 매우 좁은 관점을 취해왔다. 과거 여성 저널리스트들은 특정 지면을 할당받았고, 가정적이고 사적인 생활과 관련된 내용들로 채워진 여성 기사를 작성하도록 훈육 받았다(Phalen & Algan, 2001). 고정적인 여성 면을 두고 있음에도 여성 기사는 여성 문제를 공적이고 진지하게 접근하기보다 패션, 육아, 교육, 가정, 생활정보 등으로 연성 처리하거나 사적 영역의 뉴스로 다루는 경향이 있었다(Yang, 1996). 그에 비해 사회권력 또는 정치와 관련된 주제는 남성

적이고 제1면의 관심분야로 간주되었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이분화에
서 기인한 남성뉴스와 여성뉴스 간에 명백한 경계가 있었던 것이다
(Tuchman et al., 1978).

여성이든 남성이든 뉴스메이커로서 가치 있는 사회적 위치에 존재하는
만큼만 뉴스에 등장한다(Silver, 1986). 뉴스 보도에서 관찰되는 여성의 전반
적인 부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여성의 정치·경제적 능력과 관련 있다
(Pingree & Hawkins, 1978). 그러나 일반적으로 여성이 당면한 중요한 정
치·경제 문제들은 경성뉴스로 프레임 할 수 있는 사건이나 대상일 때 어느
정도 미디어의 주목과 강조를 받는다. 만일 여성인물의 모습을 주요 지면이
나 화면에서 볼 수 있다면, 그것은 남성에 관한 기사와 달리 이른바 ‘사악한
시선’에 따른 선정적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나 부정적 이미지인
경우가 많다. 범죄관련 기사를 분석한 연구들은 이를 잘 보여준다. 미디어의
뉴스 보도는 젠더 의식이 결핍된 여성 이미지의 왜곡과 가부장제 질서를
옹호하는 메시지로 사회의 성 불평등 구조를 확대재생산하고 있다고 관련
연구들은 강조한다(김선남, 2002; 김훈순, 2004; 유선영, 1999).

미디어는 여성을 묘사할 때 여성임을 우선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성별이
가장 중요한 수식어가 된다는 사실은 자신이 수행하는 임무보다 여성이라는
점이 부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 정치인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언론
은 남성 정치인에 비해 사생활과 성격, 외모에 훨씬 많은 관심을 할애하거나
육아, 보건, 여권신장 등 전통적인 여성 주제와 연관 지워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양정혜, 2002; Davis, 1982; Devitt, 1999; Kahn, 1994). 정치운동과
관련된 여성 취재원은 경멸적이거나 비우호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묘사되
기도 한다(Ashley & Olson, 1998).

많은 연구들은 여성이 신문 및 텔레비전 뉴스에서 뉴스메이커로서 또 취
재원으로서 심하게 과소 재현되거나 왜곡 재현된다고 지적한다(김경모,
2003; 김훈순, 1997; Armstrong, 2004; Zoch & Turk, 1998). 뉴스 속의
부정확하고 왜곡된 여성 이미지를 밝히는데 초점을 둔 기존 연구들은 뉴스
가 상징적 소멸(symbolic annihilation)이라는 과정을 통해 여성을 차별의 대

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한다. 특히 왜곡된 여성 이미지가 뉴스 제작상의 한 특성, 곧 남성과 남성주의에 의해 구축된 구조와 제도적 관행을 통해 만들어지고 소비된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한다.

그런데 남성 주도로 인해 미디어 뉴스의 여성 이미지가 왜곡되고 여성의 상징적 소멸이 보편화된 것이라는 이런 견해에는 미디어 조직의 소수 구성원인 여성 저널리스트가 여성인물을 보도하는 방식은 대다수인 남성 저널리스트와 분명 다를 것이라는 논리적 전제가 깔려있다. 즉, 여성 저널리스트는 여성을 좀 더 양성평등 지향적으로 보도할 것이라는 가정, 그러므로 기자 개인의 성별은 여성관련 뉴스의 보도방식에 당연히 차이를 유발할 것이라는 가정을 이미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Rodgers & Thorson, 2003).

나아가 여성의 저널리즘 진출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면 여성보도의 변화는 앞으로 가속화되리라는 전망도 가능하다. 미디어 조직 수준에서 여성 저널리스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한다면 여성뉴스에서 관찰되는 성차별이 줄어드는 보도방식 변화를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뉴스 제작과정에는 미시에서 거시에 이르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Shoemaker & Reese, 1996). 따라서 단순히 뉴스 조직의 여성비 증가가 여성보도의 급격한 변화로 이어지리라 단정하는 것은 성급한 결론이다. 하지만 여성보도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느 기자 집단에서 어떤 방향으로 일어나는지 규명하는 일은 흥미로운 연구문제이다.

2) 미디어 조직과 성차

여성 이미지 분석을 통해 뉴스의 성차별적 메시지가 재생산되는 미디어 조직 수준의 원인을 두고 연구자들은 다양한 견해를 편다. 뉴스조직 내부의 성비 불균형이나 남성 주도의 성 역할, 남성적 가치관과 시각이 지배하는 뉴스와 그 제작과정에 대한 인식 및 보도관행, 남성 중심의 취재보도시스템 등이 대표적인 이유들이다(김경모, 2003; 김경희, 1998; 김훈순, 1997; Greenwald, 1990; Tuchman, et al., 1978; Ziegler & White, 1990). 뉴스

미디어가 생산하는 여성상에 초점을 맞춘 이런 연구들은 뉴스가 여성을 실제보다 왜곡시켜 묘사하는 정도를 넘어 성차별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이런 비판의 근거 중 하나는 여성 저널리스트에 대한 견해와 관련 있다. 문제는 여성 저널리스트의 수적 증가와 그에 따른 변화에 대해 상반된 입장의 전망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첫째 견해는 여성 저널리스트가 언론계에서 다수가 된다면 여성적 특수성이 전통적으로 뉴스가 표현되는 방식에 변화를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유선영의 연구는 편집국 여성비의 차이에 따른 여성보도의 변화를 보고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여성 언론인의 주류화를 모색하는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한다(한국언론재단, 2002; 2003). 다른 견해는 여성이 많아져 더라도 뉴스내용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뉴스생산은 본질적으로 전문적인 활동이고 특별히 젠더화 되어 있지 않으며 제작과정에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Lavie & Wilzig, 2003). 언론사의 정책이나 관행, 조직 분위기 같은 규범적·문화적 요인이 개인차를 희석시키므로 남녀기자 간에는 자율성, 취재원 이용, 뉴스선택, 여성관 등에서 별 차이가 없다고 본다(Cann & Mohr, 2001; Liebler, 1994; Liebler & Smith, 1997; Whitlow, 1977).

(1) 개인적 요인으로서 기자의 성별

특정 뉴스 아이템의 선택 또는 프레임의 구성을 기자 개인의 경험, 태도, 기대에 기초한 가치 판단이나 성별, 배경, 인종 같은 개인 범주의 결과물로 이해하는 뉴스 의사결정의 저널리스트 중심이론은 게이트키퍼 연구의 초기부터 전형적인 뉴스내용 영향요인 모델의 하나로 간주되어 왔다(Shoemaker, 1991). 그럼에도 여성관을 포함하여 뉴스 생산자의 뉴스가치관을 분석한 연구들은 저널리스트 개인의 성별에 따라 뉴스내용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제시한다(Shoemaker & Reese, 1996 참조). 남녀기자들의 언론관, 직업의식, 전문직 사회화 과정 등에 관한 연구문헌을 고찰하면서 van Zoonen (1994)은 기자들의 가치관과 업무관에서 남녀기자는 근본적으로 서로 다르

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러나 일단의 연구는 기자의 성차가 뉴스를 표현하는 새로운 관점과 방식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상반된 전망도 제시한다(양정혜, 2002; 한국언론재단, 2003; Armstrong, 2004; Zoch & Turk, 1998). Mills(1989)에 따르면, 여성 저널리스트는 뉴스가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건, 쟁점을 달리 포착하여 기사의 외연을 확장하고 여성 수용자에 대한 관심을 강조한다. 따라서 여성 저널리스트의 증가는 뉴스 생산과정과 구조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2) 조직적 요인으로서 편집국의 성비

증가세는 비록 점진적이지만 전세계적으로 1970년대 중후반부터 저널리즘 영역에 여성이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다. 세계 평균수준인 38%에는 미치지 못하나 우리 언론계도 여성 저널리스트의 증가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한국언론재단, 2002). 그러므로 뉴스 편집국에서 여성이 점차 증가하는 현상이 뉴스 아이템의 종류나 내용에 변화를 가져오고 뉴스가치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의문은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연구문제이다(한국언론재단, 2003; Creedon, 1993).

Jolliffe와 Catlett(1994)는 여성잡지에 나타나는 여성 이미지 묘사가 잡지사 여성기자의 지위 상승과 맞물려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잡지사 내에서 여성 편집장의 수가 증가할수록 여성에 대한 수동적·의존적 묘사는 줄어들고, 여성을 지식이 있으며 독립적인 행동을 하는 행위자로 묘사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발행부수와 저널리스트 성비 구성이 서로 다른 미국 3개 신문의 기사보도를 비교한 Rodgers와 Thorson(2003) 또한 여성비가 높은 신문의 여성기자는 남성기자와 달리 더 다양한 취재원을 활용하고 긍정적인 논조의 기사를 쓰며 다루는 기사 주제 역시 다양하다고 보고하였다.

반면에, Lavie와 Wilzig(2003)은 복잡한 뉴스 선택과정과 생산 조직구조가 최종 뉴스 생산물에 기자 개인이 과도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때문에 저널리즘 분야로 여성들이 대거 진입하더라도 뉴스의제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미디어 산업에 진출한 여성의 수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승진기회와 같은 수직적 차별, 담당부서 배치와 같은 수평적 차별로 인해 제작과정에서 여성이 지닌 영향력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윤석민·이철주, 2003). 다양한 배제기제가 작동함으로써 여성기자의 활동을 구조적으로 제약한다(김경희, 1998). 미디어 사회학 관점에 따르면, 뉴스의 생산과정에서 권력 중심으로 유지되어온 선택과 배제를 통한 게이트키퍼, 취재와 뉴스제작에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이유로 굳어진 관행, 뉴스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의례’로서 객관주의 기사작성, 조직 내의 전문직 사회화를 통해 형성된 남성 중심의 직업전문인주의 등은 페미니즘 같은 뉴스 생산자 개인의 가치관이나 이념이 메시지 생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힘들게 만든다(Shoemaker & Reese, 1996; Tuchman, 1978). Creedon(1993)은 저널리즘 영역으로 여성의 유입이 증가하더라도 뉴스내용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젊은 기자들이 처음에 조직과 일치하지 않는 태도를 지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직장 내 규범에 순응하고, 방침을 내재화하고 합리화하는 것을 배운다는 사실을 들어, 여성 저널리스트의 증가가 뉴스내용의 변화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연구문제 및 연구가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 언론인과 여성관련 보도의 관계에 주목하는 선행연구들은 성별이라는 기자의 개인속성 수준에서 또 성비라는 미디어의 조직속성 수준에서 각각 서로 상반된 전망을 내리는 분석결과들을 내놓고 있다. 이런 상황은 여성뉴스의 내용에 미치는 성별과 성비의 영향력에 대한 이해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따라서 이 연구는 주요 일간지에서 여성인물을 보도할 때 기자 개인의 성별과 편집국의 성비 요인이 보도방식에 어떤 차이를 유발할 수 있을지 검토한다.

여성인물 기사의 내용분석을 바탕으로, 연구문제 1은 기자 성별에 따라

보도방식과 관련된 변인의 분석유목에서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선행연구로부터 유도할 수 있는 가설을 세워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기자 개인의 성별에 따라 여성인물 보도방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일반적으로 기자가 뉴스기사에 부여하는 중요도는 기사위치, 헤드라인의 크기나 내용, 기사길이 등으로 나타난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기사는 제1면에 위치하고, 기사의 헤드라인 크기 또한 눈에 띄게 크다. 중요한 뉴스는 덜 중요한 뉴스보다 기사길이가 더 길다. 그런데 여성은 남성보다 지면을 훨씬 덜 할애 받고, 여성관련 보도의 헤드라인은 남성에 관한 것보다 짧다 (Davis, 1982). 전반적인 뉴스 생산과정이 남성 지배적임과 관련하여 여성이 남성보다 뉴스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평균적으로 여성은 상대적으로 적은 양으로 보도된다. 하지만 여성기자가 뉴스가치가 있는 여성관련 기사 아이템을 선택할 때 보다 다양성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Mills, 1989)한다면, 여성기자는 자신이 선택한 여성인물에 대해 남성기자보다 더 많은 관심을 할애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인물에 대한 남녀기자들의 상대적 기사길이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남녀기자가 여성인물 기사에 부여하는 중요도를 가늠해볼 수 있다.

연구가설 1-1: 여성기자는 남성기자보다 여성인물을 더 길게 보도할 것이다.

뉴스는 여성을 묘사할 때 항상 여성임을 우선적으로 밝힌다. 성별이 가장 중요한 수식어가 된다는 사실은 특정인이 수행하는 임무보다 여성이라는 점이 부각된다는 것을 뜻한다. 여성은 결혼여부, 복장, 신체 묘사 등 사적인 정보나 주변적 단서로 뉴스에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남성 중심의 뉴스 생산구조와 관행은 여성을 보도할 때 남성과 다른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이다(양정혜, 2002; Devitt, 1999; Davis, 1982). 예를 들어, 공적 영역에 진출

한 여성의 경우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 또 어떤 이유로 뉴스표적이 되든지 성적 대상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Kahn & Goldberg, 1991). 대체로 가부장적이고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한 남성일수록 여성을 보는 시각은 직장을 가졌거나 사회활동이 활발해도 이를 무시하거나 수행하는 임무보다 여성이라는 점을 더 부각시키고 개인적이고 주변적인 측면에 관심을 보인다. 그러나 여성기자는 이른바 남성시선(male gaze)과 다른 관점과 가치관에 의존한다(한국언론재단, 2003). 그렇다면 뉴스 주제나 배경과 관련하여 보다 본질적인 측면에서 여성인물을 묘사할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인물을 묘사할 때 기자 성별에 따라 주로 사용하는 정보의 유형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연구가설 1-2: 여성인물 보도에서 남성기자는 여성기자보다 사적인 정보를 더 많이 사용할 것이다.

뉴스 취재원의 사회적 분포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일반 시민보다 권력 엘리트나 저명인사, 서민 대중보다 공직자, 비전문가보다 전문가, 노동자보다 관리자나 대변인, 여성보다 남성이 더욱 빈번하고 중요하게 뉴스에 등장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Gans, 1979; Sigal, 1973). 특히 여성은 아예 보도되지 않거나 등장하더라도 가볍게, 또는 회화적으로 다루어지는 경우도 많다(Tuchman, 1978; Zoch & Turk, 1998). 이러한 여성의 상징적 소멸 현상은 뉴스생산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남성이고, 그 과정이 남성 중심적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여성의 직업은 전통적인 여성상과 결부된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고 권력 중심부로 이동하는 여성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뉴스 속에 재현되는 여성의 모습은 고착되어 있다. 이는 정치·경제·법 등 중요하고 심각한 내용은 남성 영역이고 교육·육아·취미 등 가정생활과 관련된 가벼운 주제는 여성 영역이라는 미디어 관습적인 성역할 정형화와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하고 남성 영역으로 일컫던 직업에 진출하면서, 여성은 남성과 달리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훨씬 벗어나 있다(탁진국, 1995). 선행연구 또한 뉴스 보도가 전반적으로 젠더 편향을 보이지만, 기자의 성별에 따라 취재원 이용과 뉴스 내용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김경모, 2003; Armstrong, 2004; Zoch & Turk, 1998). 상대적으로 여성기자는 여성 취재원을 더 선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기자는 남성기자보다 다양한 영역에 있는 여성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뉴스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들을 뉴스메이커로 선택할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가설 1-3: 여성기자와 남성기자가 보도하는 여성인물의 직업분포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Powers와 Fico(1994)는 취재원이나 뉴스 대상을 선택할 때 기자 개인의 판단이나 선호도 같은 태도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뉴스의 초점이 되는 사건이나 사건 관련 당사자에 대한 기자의 태도는 기자의 논조(tone)에 반영되기 마련인데, 뉴스의 인물을 프레임 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남성에 비해 여성은 뉴스메이커로 뉴스에 자주 등장하지 않는다. 뉴스메이커가 되더라도 신기성, 일탈성과 관련 있거나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될 때가 많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여성관련 보도에서 부정적인 논조의 기사 비중이 높다. 그런데 기자 개개인은 경험과 지식, 배경 등을 가지고 자신의 가치관과 일치하는 뉴스를 만들려는 경향이 있다(Flegal & Chaffee, 1971; Hofstett & Buss, 1978). 그러므로 페미니즘 시각의 기자나 여성기자는 뉴스에서 표상되는 여성의 이미지를 바로잡는데 더욱 적극적일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더불어, 남성기자는 승리/패배와 같은 갈등관계에 뉴스가치를 두고 접근하는 반면 여성기자는 조화/화합 등 우호관계의 관점에서 글쓰기를 선호한다(Covert, 1981)는 점을 감안한다면, 여성기자가 남성기자에 비해 여성인물을 보도할 때 긍정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연구가설 1-4: 여성기자는 남성기자보다 여성인물을 더 긍정적으로 보도할 것이다.

남성 지배적인 권력구조를 지닌 조직에서 여성은 남성과 비슷한 행동을 하고 비슷한 태도를 가진다. 이는 남성지배적 조직에서 소수자인 여성이 살아남기 위해 의도적으로 동화되는 것일 수도, 조직의 요구에 따라 표준행동 또는 관행에 자연스럽게 맞추어 가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뉴스 미디어 같은 남성 지배적 조직에서는 남녀기자간의 보도방식에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¹⁾ 하지만 여성의 비율이 높은 조직에서는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자율성이 허용되기 때문에, 여성의 태도나 행동은 물론 조직 내의 권력관계나 분위기의 변화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여성기자의 비율이 높은 《한겨레신문》과 여성주의를 표방하는 《여성신문》의 여성관련 보도는 여타 일간지와 달리 친여성적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언론재단, 2002). 그러므로 기자 개인의 성별에 따라 여성인물 보도에서 일정한 차이가 드러난다면 신문사 조직에서 여성기자가 증가하는 바에 따라 그 보도방식도 같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신문사의 여성비와 기자 개인의 성별처럼 서로 다른 분석수준의 변인들이 여성인물 보도에 어떤 방식으로 함께 영향을 미칠지는 여전히 불명확하다. 따라서 신문사의 여성기자 비율에 따라 여성인물 보도에서 남녀기자 간에 어떤 차이가 발견될지 알아보고자 연구문제 2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2: 신문사 편집국의 기자 성비에 따라 남녀기자간의 여성인물 보도방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1) 사회화 이론의 틀에서 기자 개인의 조직 순응성을 설명하려는 Rodgers와 Thorson(2003)에 따르면, 미디어 조직에서 이처럼 남녀기자간의 보도방식에 차이가 없는 것은 직업 사회화(job model of socialization)라는 조직 과정의 위력이 개인의 성차에 기초한 성역할 사회화(gender model of socialization) 과정을 압도하여 개인차를 희석시키기 때문이다.

4.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및 뉴스표집

이 연구는 기자 개인의 성별에 따라 뉴스메이커로서 여성인물을 보도할 때 조직의 영향력을 어떻게 받는지 분석하기 위해서 신문사 조직의 저널리스트 성비 요인에 주목한다. 곧 기자 개인의 성별은 물론, 여성기자의 비율이 높은 신문사와 낮은 신문사 간에 여성인물을 다루는 보도방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내용분석을 통해 알아보려는 것이다.²⁾ 2003년 현재 《조선일보》는 종합일간지 가운데 여성기자의 비율이 9.6%로 가장 낮고, 《문화일보》는 14.9%로 중간 정도이며, 《한겨레신문》은 18.4%로 그 비율이 가장 높다(김경자, 2003). 조직 간의 성비 변이(gender ratio variation)를 가장 크게 하고자 세 신문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했다.³⁾

세 신문을 대상으로 2003년 4월부터 2004년 3월까지 1년 동안의 표집기간을 설정한 뒤 2003년 4월의 4주차를 기점으로 5월 1주차, 6월 2주차를

-
- 2) 여성인물 보도방식의 차이를 유발하는 기자의 개인수준 변인으로 경력, 배치부서, 페미니즘 의식 등을, 또 조직수준 변인으로 조직문화, 편집방침 등도 고려할 수 있다. 체계적으로 종합되진 못했지만 이들 요인이 여성관련 뉴스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선 선행연구들이 대체로 일관된 결과를 보여준다. 그러나 언급한 것처럼 성별과 성비의 영향력에 대해선 각각 상반된 실증결과가 공존한다. 두 요인과 관련된 이론적 명제화가 정교하지 못하기도 하지만 방법론 측면에서 개인 성별과 조직 성비라는 두 분석수준을 통합적으로 검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성별과 성비 요인에 국한하여 그 영향력을 집중 조명한다. 물론 다른 변인들이 분석에서 계속 제외되어야 한다거나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 보도차이를 유발하는 조직 과정과 맥락에 대한 풍부한 설명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후속연구에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 3) 개인수준 요인과 조직수준 요인이 함께 유발하는 분석수준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탐색함으로써 분석수준 교차 이론화(cross-level theorizing)를 지향하는 다분석수준 연구(multilevel analysis)의 방법론적 취지에 따라 조직수준에서 여성비의 변이가 가장 큰 세 신문을 선정한 것이다.

거쳐 2004년 2월 1주차, 3월 2주차에 이르기까지 모두 24주에 해당하는 여성인물 보도기사를 KINDS 검색을 이용해 전수 표집하였다. 그러나 남녀 기자 간의 기사 수에 큰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여 2차 표집(2003년 4월 2주차에서 시작하여 2004년 3월의 1주차에서 마침)을 통해 12주에 해당하는 여성기자의 여성인물 기사를 추가로 전수 표집하였다. 두 차례의 표집을 통해 확보한 여성인물 기사는 모두 478건이었다.

2) 변인의 개념화와 측정

이 연구에서 여성인물은 인구통계학적 속성 등에 관계없이 하나의 기사에서 단독으로 뉴스메이커가 되는 여성을 의미한다. 뉴스메이커란 뉴스거리를 발생시키거나 그 내용의 주된 대상이 되는 인물 또는 가장 중요한 취재원으로 인용되면서 기사를 지배적으로 구성하는 인물을 말한다.

여성인물의 보도방식과 관련된 기준변인으로 기사량, 사적정보 사용량, 직업분포, 그리고 보도태도를 설정하였다.⁴⁾ 먼저, 기사량은 기사가 여성인물에 대해서 지면을 할애하는 보도량, 곧 기사길이를 말한다. 해당기사의 글자수로 측정하였다.

사적정보는 여성이 뉴스메이커가 된 상황, 주제,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생활, 외모, 복장, 결혼여부, 부모지위, 종교, 연령, 학벌 등 주변적인 개인정보를 말한다. 사적정보량은 전체 기사에서 사적정보와 관련된 부분만의 글자수를 따로 세어 측정하였다. 한편, 사적정보율은 사적정보로 묘사된 부분의 글자수가 해당 기사의 전체 글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측정하였다.

직업은 뉴스메이커인 여성인물의 직업을 말한다. 선행연구의 직업 분류

4) 이 연구의 분석대상은 인물기사 또는 인물이 현저하게 부각되는 기사이다. 따라서 사건이나 쟁점을 다루는 기사의 분석에 유용한 주제유형이나 기사종류 같은 유목변인에 특별히 주목하지 않는다. 대신 인물의 속성 프레임과 관련된 변인을 먼저 고려하였다. 네 가지 기준변인들은 여성관련 뉴스를 분석하는 선행연구에서 기초적으로 활용되었으며, 인물을 보도하는 뉴스의 프레임 요소로도 중요하게 언급된다.

항목을 참조하였으나 빈도가 없는 항목이 많아 연구목적에 따라 몇 개 항목을 묶어 직업분포를 분석하였다.

보도태도는 뉴스메이커가 된 여성인물을 보도하는 기자의 표현태도를 말한다. 기사에서 여성인물을 칭찬하거나 높이 평가하려는 의도가 표현될 때는 긍정, 여성인물에 대해서 단순한 사실과 객관적인 정보만을 전달하는 경우는 중립, 그리고 여성인물을 폄하하는 수식어를 사용하거나 낮게 평가하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는 부정으로 분류하였다.

무작위로 선정한 40개 기사를 대상으로 측정한 두 연구자의 최종 코더간 신뢰도(홀스티)는 사적정보량이 .84로 다소 낮았으나 나머지 변인은 모두 .90 이상의 만족스런 수준이었다. 성별이나 성비에 따른 보도방식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내용분석은 주로 카이스퀘어 검증을 사용하였다. 성별과 성비의 상호작용을 검토하고자 분석의 정교화 과정(elaboration process)을 거쳐야 하는 경우 다변량 유관분석(multivariate contingency analysis)을 적용하였다.

5. 분석결과

1) 기자 성별에 따른 여성인물의 보도 방식

분석대상인 세 신문의 여성인물 기사는 모두 478건이었다. 남성기자가 쓴 기사는 333건(69.7%), 여성기자가 쓴 기사는 145건(30.3%)이었다. 신문 사별로 《조선》이 190건(39.7%)으로 가장 많았고 《문화》와 《한겨레》는 각각 144건(30.1%)으로 동일했다.

(1) 연구가설 1의 검토

여성기자가 남성기자에 비해 여성인물에 관한 기사를 더 길게 보도할 것이라는 연구가설 1을 검토하기 위해 기자 성별에 따른 기사량 차이를 검증

하였다(<표 1> 참조). 기사당 평균 글자수에서 여성기자(1053.9자)가 남성기자(977.14자)보다 더 길게 여성인물에 관해 보도하고 있지만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t=-1.13$, $df=476$, $p>.05$). 그러나 분석 대상 기사의 형식·내용 특성이나 각 신문의 전체 지면량을 고려하지 않았음에도 가설 방향과 일치하는 차이를 관찰할 수 있다.⁵⁾ 상대적으로 여성기자가 여성인물에게 더 관심을 할애하여 심층적으로 보도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연구가설 2의 검토

남성기자가 여성기자보다 사적정보를 기사에 더 많이 포함시킬 것이라는 연구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해 기자 성별과 사적정보율(사적정보량)의 관계를 분석하였다(<표 1> 참조). 남성기자는 기사당 사적정보를 평균 5.32%(59.54자) 포함시키고, 여성기자는 평균 4.41%(49.55자) 포함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인물을 보도할 때 남성기자가 상대적으로 사적정보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가설의 방향과 일치하는 경향을 읽을 수 있으나, 이런 남녀기자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t=.95$, $df=476$, $p>.05$). 신문 뉴스에 담기는 인물관련 사적정보는 독자의 궁금증을 풀어준다는 장점도 있지만 흥미위주로 기사를 프레임하거나 연성화하는 효과도 지닌다. 그러나 가설의 예측과 달리, 여성인물을 흥미위주로 연성 처리하여 묘사하는 서술 방식에서 남녀기자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⁶⁾

5) 평균 글자수를 고려하여 기사량을 짧은기사(1~665자: 159건 33.3%), 중간기사(666~1155자: 159건 33.3%), 긴기사(1156자 이상: 160건 33.5%)로 재코딩하여 남녀기자간의 기사길이 차이를 검토했다. 성별에 따라 짧은기사(남기자: 111건 33.3%, 여기자: 48건 33.1%), 중간기사(남기자: 121건 36.3%, 여기자: 38건 26.2%), 긴기사(남기자: 101건 30.3%, 여기자: 59건 40.7%)의 빈도차가 나타났다. 여성인물을 심층적으로 보도하는 긴 기사를 작성하는 여성기자의 상대빈도가 남성기자보다 훨씬 앞서는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chi^2=6.36$, $df=2$, $p<.05$). 따라서 가설 1은 부분적으로 지지할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선 기사유형이나 주제 등 유관변인과의 관계를 분석한다면 기사길이의 의미를 더욱 풍부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6) 전체기사 478건 중 259건(54.2%)은 사적정보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표 1> 기자 성별에 따른 기사량, 사적정보량 및 사적정보율

기자성별	기사량	사적정보량	사적정보율
남	977.14(694.80)	59.54(152.54)	5.32(10.20)
여	1053.90(653.50)	49.55(92.25)	4.41(8.28)

* 기사량과 사적정보량은 기사당 글자수, 사적정보율은 %가 단위(괄호 안은 표준편차).

(3) 연구가설 3의 검토

여성기자와 남성기자가 보도하는 여성인물의 직업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설 3을 검토하고자 기자 성별에 따라 여성인물의 직업이 어떻게 분포되는지 살펴보았다(<표 2> 참조). 전체적인 여성인물의 직업분포를 보면, 문화·예술·종교인(23.6%)과 일반여성(22.8%)의 비중이 높은 반면 정치인·행정관료(15.7%), 전문직(15.9%)이 중간 수준, 재야·시민운동가(7.3%), 기업인(7.9%), 사무근로직·공무원(6.9%)의 보도는 낮은 비중의 분포를 나타냈다($X^2=102.80$, $df=6$, $p<.001$). 여성은 주로 생활, 문화, 예술 같은 전통적인 여성 영역이나 사적인 영역에 자주 등장한다는 기존의 여성 관련 뉴스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김경모, 2003; 한국언론재단, 2002; 2003). 하지만 기자 성별에 따른 분포를 보면, 남성기자가 정치인·행정관료 같이 권력층에 있는 여성을 다루는 빈도가 여성기자보다 훨씬 높았다(남 기자: 19.8%, 여기자: 5.5%).⁷⁾ 문화·예술인, 그리고 일반여성을 다루는 빈

이들을 제외한 219건을 대상으로 기자성별에 따른 사적정보율의 차이를 다시 검증하였다. 그 결과, 남성기자는 기사당 평균 11.97%, 여성기자는 9.01%의 사적정보를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기사와 대비해보면 남녀기자간의 차이가 가설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더 벌어진 사실(1% → 3%)을 알 수 있으나,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t=1.75$, $df=217$, $p>.05$). 가설 2는 측정 신뢰도를 높이고 사례수를 늘려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 7) 권력층 취재원을 만날 기회가 많은 정치부는 관행상 남성기자의 전담영역이라는 점에서 이런 차이는 당연한 결과처럼 보인다. 하지만 미디어 뉴스는 정치인, 공직자 같이 공적 영역의 뉴스메이커가 여성이라면 남성과 달리 이중 잭대를 적용하거나 사적 영역으로 주변화시킴으로써 여성의 불평등 이미지를 재구성한다(양정혜, 2002; Ashley & Olson, 1998; Kahn & Goldberg, 1991).

도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남성기자는 권력층과 가까운 사람들을 뉴스의 중심인물로 이용하거나 전통적인 여성 영역으로 여겨온 문화·예술 분야나 개인화된 일반여성들을 빈번하게 보도하는 양극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반면, 여성기자는 남성기자에 비해 재야·시민운동을 다루는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남기자: 4.5%, 여기자: 13.8%). 뿐만 아니라 남성기자에 비해 여성인물을 뉴스메이커로 선택하는데 대체로 고른 분포를 보여준다. 남녀기자간의 이런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X^2=30.22$, $df=6$, $p<.001$).⁸⁾ 남성기자가 공적 영역의 여성이라도 사적으로 주변화시키거나 전통적인 영역의 여성들을 더 집중적으로 보도한다는 것은 여전히 뉴스 속에서 고정관념적인 여성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음을 뜻한다. 반면 여성기자는 다양한 직업분야의 여성들에게 관심을 두고 이들을 뉴스를 통해 가시화함으로써 여성의 공적 지위를 높이려는 성향이 남성기자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표 2> 기자 성별에 따른 여성인물 직업 분포

단위: %, () 기사수

기자성별	1	2	3	4	5	6	7	계
남	19.8	4.5	7.5	15.3	22.5	5.7	24.6	100.0(333)
여	5.5	13.8	9.0	17.2	26.2	9.7	18.6	100.0(145)
계	15.7	7.3	7.9	15.9	23.6	6.9	22.8	100.0(478)

* 1 정치인·행정관료, 2 재야·시민운동가, 3 기업인, 4 전문직, 5 문화·예술·종교인, 6 사무근로직·공무원, 7 일반여성(학생/주부/기타)

8) 부서나 출입처 배당에서 여전히 여성기자는 남성기자보다 비권력적이거나 중요성이 떨어지는 주변부서 또는 전통적인 여성영역에 제한적으로 배치된다(김경희, 1998; 한국언론재단, 2002). 남성기자에 비해 취재원 접촉범위가 그만큼 협소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분석결과는 남성기자보다 여성기자가 다양한 직업군의 여성을 보도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제한적인 부서(출입처) 배치라는 근무환경의 조직구조적 여건이 오히려 여성기자로 하여금 남성기자와 달리 더 다양한 여성인물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4) 연구기설 4의 검토

여성기자가 남성기자보다 여성인물을 긍정적으로 보도할 것이라는 연구 가설 4를 검증하고자 기자 성별에 따른 보도태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표 3> 참조). 여성기자(43.4%)는 남성기자(31.2%)에 비해 여성인물을 긍정적으로 보도하는 정도가 높은 반면, 남성기자(13.8%)는 여성기자(6.9%)보다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빈도가 높았다. 남성기자가 좀 더 여성을 중립적으로 보도(남기자: 55.0%, 여기자: 49.7%)하고 있었다.⁹⁾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X^2=11.04$, $df=2$, $p<.01$). 뉴스 속의 여성 이미지 개선에 여성기자가 더 적극적이라는 사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표 3> 기자 성별에 따른 여성인물 보도태도

단위: %, () 기사수

기자성별	긍정	부정	중립	계
남	31.2	13.8	55.0	100.0(333)
여	43.4	6.9	49.7	100.0(145)
계	34.9	11.7	53.3	100.0(478)

2) 신문사의 조직 성비와 기자 성별에 따른 여성인물의 보도방식

이상에서 기자 성별에 따라 여성인물 뉴스의 기사량, 사적정보 사용량, 직업 분포, 보도태도에 어떤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문제 2는 조직 구조 요인인 신문사 내의 기자 성비 차이에 따라 남녀기자 간의 여성인물 보도방식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1) 신문사 조직의 성비에 따른 여성인물의 보도방식

신문사 조직의 성비에 따라 보도방식에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고자 먼저

9) 흥미롭게도, 남성기자는 여성 뉴스메이커를 긍정적으로 묘사할만한 상황이라도 중립적인 서술을 하는 반면 여성기자는 중립적인 상황이라도 긍정적인 면모를 부각시켜 서술하려는 편향을 관찰할 수 있다.

기사량과 사적정보 사용량을 검토하였다(<표 4> 참조). 편집국의 여성비에 따른 기사량의 유의미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F=.83$, $df=2$, $p>.05$).¹⁰⁾ 그러나 분석 대상 신문에서 여성비가 증가할수록 기사당 사적정보를 사용하는 정도는 분명하게 줄어들었다(사적정보량: $F=8.04$, $df=2$, $p<.001$; 사적정보율: $F=12.12$, $df=2$, $p<.001$). 《조선》의 여성인물 뉴스가 가장 많은 사적정보를 사용하는데 비해 《한겨레》의 기사는 가장 적게 사적정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¹⁾ 사적정보 사용에서 남녀기자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던 앞의 분석과 대비된다.

<표 4> 신문사 조직 성비에 따른 기사량, 사적정보량 및 사적정보율

조직 여성비	기사량	사적정보량	사적정보율
조선(9.6%)	1046.59(586.65)	81.48(140.82)	7.25(12.25)
문화(14.9%)	951.38(658.25)	58.37(180.11)	5.07(8.71)
한겨레(18.4%)	988.56(813.29)	21.69(44.26)	2.11(4.71)

*기사량과 사적정보량은 기사당 글자수, 사적정보율은 %가 단위(괄호 안은 표준편차).

신문사 조직의 성비에 따라 보도하는 여성인물의 직업분포에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았다(<표 5> 참조). 대체로 세 신문 모두 여성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적인 보도 경향을 보여준다(한국언론재단, 2002; 2003). 그러나 세 신문 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직업군은 재야·시민운동가와 기업인 항목

10) 기사량의 평균을 중심으로 짧은기사, 중간기사, 긴기사로 구분한 뒤 세 신문간의 차이를 검토하였다. 편집국 성비에 따른 짧은기사(조선 27.9%: 문화 31.3%: 한겨레 41.0%), 중간기사(조선 34.7%: 문화 41.0%: 한겨레 23.6%), 긴기사(조선 37.4%: 문화 27.8%: 한겨레 35.4%)의 빈도차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X^2=13.52$, $df=4$, $p<.01$). 그러나 이런 차이는 조직 성비보다 각 신문의 전체 지면량 또는 편집방침과 관련 있어 보인다.

11) 사후검증(Scheffe) 결과, 사적정보량에서 《조선》과 《한겨레》간의 차이가 유의미했다. 사적정보율의 경우 세 신문사 간에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처럼 흥미 중심으로 여성인물을 연성뉴스화하려는 보도경향은 조직 여성비가 낮은 《조선》의 상업적인 편집방침이나 시장에 민감한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었다. 재야·시민운동가에 대한 보도에서 《조선》(3.2%)은 상대적으로 낮고 《문화》(6.9%)는 중간 수준인데 반해 《한겨레》(13.2%)는 높은 빈도를 보였다. 기업인 항목의 경우 상대적으로 《조선》(13.7%)이 가장 높지만 《문화》와 《한겨레》는 동일하게 낮은 4.2%의 빈도를 나타냈다. 각기 다른 두 신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선》은 일반여성의 보도빈도가 낮고, 《한겨레》는 문화·예술·종교인을 보도하는 빈도가 낮았으며, 《문화》는 사무근로직·공무원의 보도빈도가 높았다. 직업분포에서 나타나는 신문사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X^2=30.83$, $df=12$, $p<.01$). 이런 차이는 신문사의 조직 이데올로기나 여성보도와 관련한 편집국의 분위기를 일정 정도 반영하는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표 5> 신문사 조직 성비에 따른 여성인물 직업 분포

단위: %, () 기사수

조직 여성비	1	2	3	4	5	6	7	계
조선 (9.6%)	16.3	3.2	13.7	16.3	25.8	5.8	18.9	100.0(190)
문화 (14.9%)	13.2	6.9	4.2	15.3	24.3	9.7	26.4	100.0(144)
한겨레(18.4%)	16.7	13.2	4.2	16.0	20.1	5.6	24.3	100.0(144)
계	15.5	7.3	7.9	15.9	23.6	6.9	22.8	100.0(478)

* 1 정치인·행정관료, 2 재야·시민운동가, 3 기업인, 4 전문직, 5 문화·예술·종교인, 6 사무근로직·공무원, 7 일반여성(학생/주부/기타)

마지막으로, 신문사의 조직 성비와 여성인물 보도태도 간의 관계를 살펴 보았다(<표 6> 참조). 10% 미만대의 편집국 여성비를 지닌 《조선》이 여성인물에 대해 가장 낮은 긍정적 보도태도와 가장 높은 부정적 보도태도를 보인 반면, 15~19% 대의 《문화》와 《한겨레》는 상대적으로 높은 긍정적 보도태도와 낮은 부정적 보도태도를 나타냈다. 분석 대상 신문에서 편집국의 여성비가 증가할수록 여성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정도는 현저하게 줄어드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문사간의 이런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X^2=20.04$, $df=4$, $p<.001$).

<표 6> 신문사 조직 성비에 따른 여성인물 보도태도

단위: %, () 기사수

조직 여성비	긍정	부정	중립	계
조선 (9.6%)	27.9	18.9	53.2	100.0(190)
문화 (14.9%)	41.7	8.3	50.0	100.0(144)
한겨레(18.4%)	37.5	5.6	56.9	100.0(144)
계	34.9	11.7	53.3	100.0(478)

조직 수준의 여성비에 따른 여성인물 보도방식의 차이에 관한 이상의 분석은 편집국의 여성 비중과 여성보도의 개선은 정적인 관계일 것이라는 앞의 이론적 가정과 대체로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른바 ‘한겨레 모델’을 제시하며 여성관련 뉴스의 변화 방향을 제언한 선행연구(한국언론재단, 2002)와 비슷한 결과이다. 그러나 이것이 여성기자의 증가가 항상 양성평등적인 뉴스생산을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2) 조직 성비와 기자 성별에 따른 여성인물의 보도방식

기자 성별과 조직 성비가 함께 유발하는 여성인물 보도방식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각 신문 내의 남녀기자 간 차이를 개별 신문사별로 따로 분석하였다. 흥미롭게도, 세 신문 모두 대다수의 분석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남녀기자간의 차이를 관찰할 수 없었다.¹²⁾ 적어도 세 신문의 경우, 같은 조직 내의 남녀기자들은 여성인물에 대해 대체로 비슷한 방식으로 보도하는 조직 분위기에 젖어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직 요인의 영향으로 성별이라는 개인차가 희석된 결과이다. 임계집단(critical mass)을 형성하는 지

12) 남녀기자간 차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문화》의 경우 모든 분석 변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조선》의 경우 보도태도에서 유의미한 남녀기자간 차이가 관찰되었다($X^2=6.83$, $df=2$, $p<.05$). 《한겨레》의 경우 유의미한 남녀기자간 차이가 관찰된 것은 사적정보율($t=-2.04$, $df=56.41$, $p<.05$)과 직업 분포($X^2=27.69$, $df=6$, $p<.001$)였다. 이런 차이는 비록 같은 신문사에서 근무 하더라도 남성기자보다 여성기자가 여성 우호적인 보도를 하는 기본 성향이 강하다는 점을 반영하는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점까지 미디어 조직에서 여성기자가 증가하더라도 여성관련 뉴스의 큰 변화를 당장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Liebler & Smith, 1997)과 해석상 일치하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여성기자의 비율이 낮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조직 수준의 성비 차이에 따라 관찰되는 세 신문간의 여성인물 보도방식 변화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결국, 편집국의 여성비가 증가하는 순서에 따라 소속 신문사가 서로 다른 남성기자 간에, 또는 여성기자간에 여성인물 보도방식에서 어떤 차이가 나타날지 규명하는 쪽으로 분석의 초점을 맞추었다.

먼저, 신문사 조직의 성비와 기자 개인의 성별에 따른 기사량의 차이를 검토하였다(<표 7> 참조). 편집국의 여성비가 증가할수록 남성기자간의 또는 여성기자간의 기사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패턴을 관찰할 수 없었다. 이원변량분석에 따르면, 조직 성비나 기자 성별간의 상호작용효과는 물론 이들 각각의 주효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 성비와 기자 성별에 따른 사적정보 사용량의 차이를 살펴보았다(<표 7> 참조). 편집국에서 여성기자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남성기자의 사적정보율(조선 7.79% > 문화 5.77% > 한겨레 1.52%)과 여성기자의 사적정보율(조선 5.71% > 문화 > 3.90% > 한겨레 3.56%)이 함께 줄어드는 경향을 관찰할 수 있었다.¹³⁾ 여성기자의 비율이 높은 신문사에서는 여성을 묘사할 때 남녀기자 모두 주변적이고 사적인 정보를 사용하기보다 뉴스의 주제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인물의 특성에 초점을 맞춰 진지하게 보도하고자 노력한다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물론 이원변량분석은 조직 성비의 주효과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결과($F=6.52$, $df=(1, 472)$, $p<.01$)를 보여 주므로 이런 해석은 다소 엄격할 필요가 있다.

13) 남성기자 기사의 이런 경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F=12.03$, $df=2$, $p<.001$). 그러나 여성기자의 경향까지 유의미한 것은 아니다($F=.92$, $df=2$, $p>.05$).

<표 7> 조직 성비와 기자 성별에 따른 기사량 및 사적정보율 차이

	조선(9.6%)	문화(14.9%)	한겨레(18.4%)
<u>기사량(글자수)</u>			
남	999.21	965.76	956.69
여	1182.92	927.43	1065.98
<u>사적정보율(%)</u>			
남	7.79	5.77	1.52
여	5.71	3.90	3.56

조직 성비와 기자 성별에 따라 여성인물의 직업이 어떻게 분포되는지 살펴 보았다(<표 8> 참조). 《조선》의 남성기자는 정치인·행정관료(20.6%), 전문직(16.3%), 문화·예술·종교인(22.0%), 일반여성(19.9%)을 뉴스메이커로 빈번하게 이용하고 있었다. 《문화》의 남성기자는 정치인·행정관료(16.7%), 문화·예술·종교인(24.4%), 일반여성(27.8%)을 빈번하게 등장시켰다. 《한겨레》의 남성기자는 일반여성(28.4%), 문화·예술·종교인(21.6%), 정치인·행정관료(21.6%), 전문직(16.7%)을 뉴스메이커로 많이 다루고 있었다. 이처럼 세 신문의 남성기자들은 공통적으로 사회의 중심부에 있거나 전통적인 여성 영역의 인물들을 대거 보도하고 있으며, 재야·시민운동가 같은 비주류 층의 여성은 거의 뉴스메이커로 취급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각기 다른 두 신문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조선》 남성기자는 기업인의 보도 비중이 높고 재야·시민운동가와 일반여성의 비중은 낮은 반면, 《문화》 남성기자의 경우 사무근로직·공무원의 보도 비중이 높았다. 여성인물의 직업 분포에서 보이는 세 신문사 남성기자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X^2=26.47$, $df=12$, $p<.01$). 이런 결과는 여성보도와 관련하여 각 신문이 두는 관심사나 뉴스가치의 방향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 같다.¹⁴⁾

14) 그러나 편집국의 여성비가 증가하는 바에 따라 보도상의 직업분포에서 여성 우호적인 경향까지 관찰되는 것은 아니다. 소속 신문에 관계없이 남성기자들은 여성인물을 사적인 영역으로 귀속시키거나 전통적인 영역에 국한시켜 보도 하려는 성향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표 8> 조직 성비와 기자 성별에 따른 여성인물 직업 분포

단위: %, () 기사수

여성비	성별	1	2	3	4	5	6	7	계
조선 (9.6%)	남	20.6	2.8	14.2	16.3	22.0	4.3	19.9	100.0(141)
	여	4.1	4.1	12.2	16.3	36.7	10.2	16.3	100.0(49)
문화 (14.9%)	남	16.7	5.6	2.2	12.2	24.4	11.1	27.8	100.0(90)
	여	7.4	9.3	7.4	20.4	24.1	7.4	24.1	100.0(54)
한겨레 (18.4%)	남	21.6	5.9	2.9	16.7	21.6	2.9	28.4	100.0(102)
	여	4.8	31.0	7.1	14.3	16.7	11.9	14.3	100.0(42)

* 1 정치인·행정관료, 2 재야·시민운동가, 3 기업인, 4 전문직, 5 문화·예술·종교인, 6 사무근로직·공무원, 7 일반여성(학생/주부/기타)

한편, 《조선》 여성기자는 문화·예술·종교인(36.7%)에 대한 보도 비중이 상대적으로 월등히 높은 반면, 정치인·행정관료와 재야·시민운동가에 대한 보도 빈도는 모두 4.1%로 아주 낮았다. 《문화》 여성기자의 경우 전문직(20.4%), 문화·예술·종교인(24.1%), 그리고 일반여성(24.1%)에 대한 보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눈에 띄는 사실은 《한겨레》 여성기자가 재야·시민운동가(30%)를 다른 직업군의 여성보다 월등한 빈도로 보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정치인·행정관료(4.8%)와 기업인(7.1%)의 보도 비중은 낮은 편이었다. 조직 이데올로기 또는 편집방침의 영향인 듯 《조선》과 《한겨레》의 여성기자들은 비중을 두는 직업군(문화·예술·종교인 ↔ 재야·시민운동가)에서 서로 대비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여성인물의 직업분포에서 보이는 세 신문사 여성기자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X^2=20.70$, $df=12$, $p>.05$). 편집국의 여성비가 증가하는 바와 관계없이, 여성기자는 남성기자와 달리 정형화된 성역할 구분에서 벗어나 여성인물을 보도하려는 기본 성향이 강함을 알 수 있다.

직업분포 분석결과는 편집국의 성비에 따라 세 신문의 남성기자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지만 여성기자 간에는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여성비 증가에 따른 남성기자간의 차이가 친여성적 경향성까지 드러내는 것은 아니지만 각 신문의 이데올로기나 관심사를 반영하는 점은 분명한 것 같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지만 여성기자간의 차이 또한 소속

신문사의 이데올로기나 분위기를 어느 정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직업분포 분석은 신문사의 조직 이데올로기와 기자 개인의 성별 요인이 상호작용하는 국면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직 성비와 기사 성별에 따라 보도태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검토하였다(<표 9> 참조). 편집국의 여성비가 증가함에 따라 남성기자의 경우 긍정적 보도태도와 중립적 보도태도에서 일관된 경향을 관찰할 수 없었지만, 부정적 보도태도(조선 22.0% > 문화 10.0% > 한겨레 5.9%)는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세 신문사 남성기자간의 이런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X^2=20.41$, $df=4$, $p<.001$). 여성기자의 경우, 여성비가 증가함에 따라 긍정적 보도태도는 증가하고 부정적 보도태도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세 신문사 여성기자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X^2=2.13$, $df=4$, $p>.05$).¹⁵⁾ 이런 관계는 여성인물 보도태도에서 편집국의 여성비와 기자의 성별이 상호작용하는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9> 조직 성비와 기사 성별에 따른 여성인물 보도태도

단위: %, () 기사수

여성비	성별	긍정	부정	중립	계
조선 (9.6%)	남	23.4	22.0	54.6	100.0(141)
	여	40.8	10.2	49.0	100.0(49)
문화 (14.9%)	남	42.2	10.0	47.8	100.0(90)
	여	40.7	5.6	53.7	100.0(54)
한겨레 (18.4%)	남	32.4	5.9	61.8	100.0(102)
	여	50.0	4.8	45.2	100.0(42)

15)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여성인물 보도에서 《조선》의 남성기자가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면 《한겨레》의 여성기자가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조선》의 여성기자와 《문화》의 남성기자가 유사한 태도 패턴을 보여주며, 《문화》의 여성기자와 《한겨레》의 남성기자가 유사한 태도 패턴을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X^2=32.74$, $df=10$, $p<.001$). 편집국의 여성비가 증가할수록 남성기자와 여성기자의 부정적인 보도태도가 함께 줄어들며 또 여성기자의 긍정적 보도태도가 증가한다는 점에서 여성 우호적 보도경향은 여성기자에게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여성인물 보도방식에 미치는 조직 성비와 기자 성별의 영향력을 함께 검토한 이상의 분석은 흥미로운 결과를 제시한다. 편집국의 여성비 차이에 따라 기사량을 제외한 모든 분석변인에서 세 신문사 남성기자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만, 여성기자간에는 어떤 변인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관찰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조직 수준의 여성비 증가에 따라 정작 여성인물 보도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쪽은 남성기자인 것이다. 이로부터 신문사 조직의 여성비 변화는 우선 여성기자보다 남성기자의 여성인물 보도방식에 더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조직 수준에서 여성비의 증가와 개인 수준에서 남성기자의 보도방식 변화라는 여성비와 성별의 상호작용이 조직 수준에서 세 신문간의 여성인물 보도방식 차이를 유발했다는 것이다. <표 10>은 모든 분석결과를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다.

<표 10> 성별과 성비에 따른 여성인물 보도방식의 차이

	기사길이	사적정보사용량	직업분포	보도태도
기자 성별	여기자가 더 길게 보도	여기자와 남성기자의 차이 없음	여기자가 더 다양한 직업을 보도	여기자가 더 긍정적으로 보도
조직 성비	기사길이 차이 있음	여성비 증가에 따라 사적정보사용량 감소	여성비 증가에 따라 직업분포에 변화	여성비 증가에 따라 긍정보도 증가
성별×성비 상호작용	기사길이 차이 없음	여성비 증가에 따라 남성기자의 사적정보 사용량 감소	여성비 증가에 따라 남성기자의 직업분포 변화	여성비 증가에 따라 남성기자의 긍정보도 증가

6. 맺음말

이 연구는 기자의 성별에 따라 여성관련 뉴스의 내용에 변화가 나타나는 지 알아보고자 종합일간지(문화, 조선, 한겨레)의 여성인물 기사를 분석하였다. 뉴스생산은 개인차원만이 아니라 직업관행, 뉴스조직의 구조, 사회제도,

이데올로기 등과 맞물려 이루어진다. 따라서 기자 성별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신문사의 기자 성비라는 조직구조적 요건을 함께 고찰하였다.

분석결과는 여성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뉴스생산 참여와 편집국 내의 수적 증가가 뉴스 속에서 여성의 과소재현, 주변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는 주장을 상당부분 뒷받침한다. 남성기자보다 여성기자가 여성인물에 대해 더 길게 쓴다는 것은 여성에 대해 더 주의를 기울이고 심층적으로 보도한다는 사실을 말한다. 뉴스에 나타나는 여성은 남성에 비해 사적이고 주변적인 정보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적정보 사용에서 남녀기자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사적정보 사용은 오히려 조직의 성비 요인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자들이 관심 갖는 여성인물의 직업분포를 보면, 남성기자보다 여성기자가 비주류 영역의 여성들이 공중의 시야에 들어오게끔 더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조적으로 남성기자가 관심을 할애하는 여성은 사회 엘리트층 또는 전통적인 영역의 인물들로 양분된다. 기부장제 사회질서가 나눠놓은 공적영역-사적영역이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남성기자에게 여전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한다. 기자 성별에 따른 여성인물의 보도태도 또한 남성기자보다 여성기자가 훨씬 긍정적으로 여성을 바라본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뉴스 속의 여성 이미지 개선에 여성기자가 더 적극적이라는 점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결론적으로, 연구문제 1과 관련된 네 가지 가설의 검증결과는 기존 연구들이 제시했던 뉴스내용의 젠더차별이 기자 성별이라는 변인과 연결되었을 때 어떻게 구조화되는지 그 경향을 보여준다. 여성인물을 보도하는 구체적인 방식에서 남성기자보다 여성기자가 다양한 직업군의 여성을 심층적이며 긍정적으로 그린다는 것이다.

신문사 조직 수준의 기자 성비라는 조직구조 요인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성별이라는 개인 요인만을 가지고 내린 분석결과에 대해 더욱 정교한 해석을 할 수 있었다. 먼저, 신문사의 기자 성비라는 조직구조 요인은 여성인물을 보도할 때 뉴스메이커의 선택에서부터 그들을 묘사하는 방식이나 태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집국의 여성비가 가장 낮은 《조선》과 중간 수준의 《문화》 그리고 가장 높은 《한겨레》의 여성인물 보도방식을 비교한 결과, 기사량을 제외한 모든 분석 변인, 곧 사적정보 사용량, 직업분포, 보도태도에서 세 신문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내의 기자 성비차가 가장 큰 《조선》과 가장 적은 《한겨레》 간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전반적으로 볼 때, 편집국의 여성비가 높은 신문에서 더욱 여성 우호적인 보도 경향을 관찰할 수 있었다.

나아가, 기자 개인의 성별과 조직 성비가 함께 유발하는 여성인물 보도방식의 변화에 대해 검토하였다. 먼저 각 신문사별로 개별 조직 내의 남녀기자간 여성인물 보도방식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분석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남녀간 차이를 관찰할 수 없었다. 같은 신문사 편집국 내의 남녀기자들은 여성인물에 대해 대체로 비슷한 방식으로 보도하는 조직 분위기에 젖어있다는 사실을 말한다.

하지만 분석대상 세 신문의 경우, 편집국의 여성비 증가가 여성기자보다 남성기자의 보도방식에 더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조직 성비와 기자 성별이 함께 보도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사적정보 사용량, 직업분포, 보도태도에서 세 신문의 남성기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일관되게 나타남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편집국의 여성비가 증가할수록 남성기자들의 사적정보 사용량이 줄어들며, 진보적인 조직 분위기를 반영하는 여성인물의 직업분포를 볼 수 있고, 또 여성에 대한 부정적 보도가 줄어드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에 반해 세 신문의 여성기자들은 부분적 차이는 있을지라도 여성인물에 대한 보도방식에서 근본적으로 서로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었다. 조직 성비와 기자 성별의 영향력을 함께 검토하였으나 모든 분석 변인에서 세 신문사 여성기자간의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여성기자들은 몸담고 있는 조직의 이데올로기나 분위기라는 제약요소들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그와 일치하는 쪽으로 여성뉴스를 보도하는 정향도 있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여성기자의 비율이 높은 편집국에서는

남성기자라 할지라도 성차별적 시선에서 벗어나 여성을 묘사하려는 경향이 서서히 나타나지만, 상대적으로 남성지배적인 신문사에서는 여성기자라 할지라도 조직의 분위기와 문화, 그리고 규범에 맞춰 동료 남성기자와 비슷한 가부장적 보도패턴으로 회귀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조직 수준의 여성비 증가는 우선 여성기자보다 남성기자의 여성인물 보도방식에 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¹⁶⁾

기자 성별과 조직 성비라는 두 요인에 국한할 때, 선행연구는 개인 및 조직 수준 모두에서 각기 상반된 실증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두 요인을 통합적으로 검토하여 분석수준 교차 이론화를 모색한 이 연구는 일관된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여성비 변화라는 편집국의 여건 변화는 조직 구성원의 보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구조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모든 구성원이 동일한 방식으로 그에 대응하거나 반응하는 것은 아니다. 이 연구는 여성인물 보도와 관련하여 남성기자가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여성의 상징적 소멸이 이제까지 남성기자가 주도한 결과라면 여전히 편집국의 주류를 이루는 남성기자의 보도태도가 변화하지 않는 한 여성뉴스의 변화는 애초부터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관찰되는 바와 같은 신문사간의 보도방식 차이를 설명하기 곤란하다. 그러나 이 연구는 여성비의 증가라는 조직 요인과 남성기자의 보도변화라는 성별 요인간의 상호작용이 분석 대상 세 신문 간에 비교적 뚜렷한 여성인물의 보도방식 차이를 낳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원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수용자에게 다양한 이야기와 관점을 제공하는 것이 언론의 의무 중 하나라면 이 연구의 결과는 뉴스 생산과정에 더

16) 조직 내 소수자인 여성기자가 임계집단을 형성하기까지 적용된다는 점에서 이런 결론은 잠정적이다. 이후부터 여성기자의 집단적 영향력이 증가할 것으로 주류집단이 주도하는 조직 분위기에서 이전보다 자유롭거나 편집방침에 대한 발언권이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하다면 여성기자의 여성인물 보도방식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리라 전망할 수 있다. 이처럼 변화된 상황에서선 기자 성별에 따른 보도내용의 변화를 검토하는 앞의 연구가설들도 조직 여성비의 구체적 조건을 고려하여 재명제화한 뒤 검증해야 할 것이다.

많은 여성 저널리스트가 참여하는 조직 변화가 오늘날 수용자의 요구와 저널리스트 자신의 의무에 모두 부합하는 일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여성기자가 여성에 대해 무조건 유리한 접근방식과 태도를 취한다거나 여성관련 보도의 변화를 주도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여성기자의 증가는 남성기자에게 그동안 뉴스에서 여성의 모습이 과소재현되고 성차별적으로 정형화되었던 상징적 소멸 현실을 개선하도록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는 가능성을 넓혀준다는 것이다(한국언론재단, 2003).

이 연구의 의도는 복잡한 뉴스 선택과정과 생산 조직구조로 인해 저널리즘 분야로 여성이 진입하더라도 여성관련 뉴스의 의제나 프레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반박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변화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려 했다는데서 연구의의를 찾을 수 있다. 물론 우리 언론계에 뿌리 깊은 남성중심주의와 사회제도적 제약성을 고려한다면 이런 변화 가능성은 아직 미약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연구범위를 벗어나므로 심도 깊은 관련 연구를 기대한다.

그러나 미시적인 연구범위를 고려하더라도 한계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개인 수준에서 기자의 페미니즘 의식, 가치관, 경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성별이라는 하나의 요인만을 검토했다. 조직 수준에서도 검토 가능한 여러 조직 변인(보도관행, 편집방침, 이데올로기 등)과 조직 성비간의 이론적 연관성을 충분히 논의하면서 실제 분석과 해석을 하지 못했다. 기자 심층 인터뷰 등 질적 방법으로 내용분석이 지닌 유추해석의 약점을 보완하지 못한 것도 한계로 남는다. 분석대상 신문사를 늘려 일반화 가능성을 재검토할 필요도 있다.

◆ 참고문헌

- 김경모 (2003). 텔레비전 뉴스의 성 역할구도 재생산 보도관행과 저널리스트의 성차: KBS, MBC, SBS의 저녁종합뉴스 내용분석. 『한국방송학

- 보』, 제17권 1호, 197~238.
- 김경자 (2003). 여기자 간부 현황. 『여기자』, 제13호, 18~23.
- 김경희 (1998). 뉴스생산과정에서의 여성소외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학』, 제14권 1호, 145~183.
- 김선남 (2002). 매매춘 관련 텔레비전 뉴스의 프레임 분석. 『한국방송학보』, 제16권 2호, 41~76.
- 김훈순 (1997). 텔레비전 뉴스 속의 성의 역학. 『한국방송학보』, 제9호, 147~178.
- _____ (2004). 한국 언론의 젠더 프레임: 범죄뉴스와 여성.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27호, 63~91.
- 신문모니터위원회 (2004). 성역할분업, 신문에 살아있다. 『평등』, 제1호.
- 양정혜 (2002). 대중매체와 여성정치인의 재현: 시사월간지와 여성월간지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46권 2호, 452~484.
- 유선영 (1999). 성범죄 보도가 구성하는 여성 신화. 『대중매체와 성의 정치학』 서울: 나남, 95~144.
- 윤석민·이철주 (2003).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사 조직에 있어서 여성인력의 지위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22호, 167~210.
- 탁진국 (1995). 한국 대학생의 직업에 대한 성고정 관념: 성별, 성역할유형 및 문화에 따른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제8권 1호, 161~174.
- 한국언론재단 (2002). 『여성과 언론: 여성보도 개선방안 연구』, 서울: 한국언론재단.
- _____ (2003). 『미디어 조직과 성차별: 여성언론인 주류화 방안』, 서울: 한울.
- Armstrong, C. L. (2004). The influence of reporter gender on source selection in newspaper stories.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81, 139~154.
- Ashley, L., & Olson, B. (1998). Constructing reality: Print media's framing of the women's movement.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5, 263~277.
- Cann, D. J., & Mohr, P. B. (2001). Journalist and source gender in Australian television news.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45, 162~174.

- Covert, C. L. (1981). Journalism history and women's experience: A problem in conceptual change. *Journalism History*, 8, 2~6.
- Creedon, P. J. (1993). The Challenge of re-visioning gender values. In P. J. Creedon (Eds), *Women in mass communication (2nd ed., pp. 3~24)*, Newbury Park, CA: Sage.
- Davis, J. (1982). Sexist bias in eight Newspapers. *Journalism Quarterly*, 64, 45~54.
- Devitt, J. (1999). *Framing gender on the campaign trail: Women's executive leadership and the press*. Washington, D.C.: The Women's Leadership.
- Flegel, R. C, & Chaffee, S. H. (1971). Influence of editors, readers and personal opinions on reporters. *Journalism Quarterly*, 48, 645~651.
- Gans, H. (1979). *Deciding What's News*. New York: Pantheon.
- Greenwald, M. (1990). Gender representation in newspaper business section. *Newspaper Research Journal*, 11, 68~74.
- Hofstetter, C. R., & Buss, T. F. (1978). Bias in television news coverage of political events: A methodological analysis. *Journal of Broadcasting*, 22, 517~530.
- Jolliffe, L., & Catlett, T. (1994). Women editors at the "Seven Sisters" magazines, 1965~1985: Did they make a difference? *Journalism Quarterly*, 71, 800~808.
- Kahn, K. (1994). The distorted mirror: Press coverage of men's and women candidates for statewide office. *Journal of Politics*, 56, 154~173.
- Kahn, K. & Goldberg (1991). Women candidates in the news: An examination of gender differences in U.S. senate campaign coverage. *Public Opinion Quarterly*, 55, 180~199.
- Lavie, A, & Wilzig, S. L. (2003). Whose news?: Does gender determine the editorial product?. *European Journal of Communication*, 18, 5~29.
- Liebler, C. M. (1994). How race and gender affect journalists' autonomy. *Newspaper Research Journal*, 15, 122~130.
- Liebler, C. M. & Smith, S. J. (1997). Tracking gender differences: A

- comparative analysis of network correspondents and their sources.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41, 58~68.
- Mills, K. (1989). New Perspectives, different voices, and better newsroom. *The Quill*, 77, 1~3.
- Phalen, P. F. & Algan, E.. (2001). (Ms)taking Context for content: Framing the fourth world conference on women. *Political Communication*, 18, 310~319.
- Pingree, S. & Hwakins, R. P. (1978). News definitions and their effects on women. In L. K. Epstein (Ed.), *Women and the news*. NY: Hastings House.
- Powers, A. & Fico, F. (1994). Influences of use of sources at large U.S. newspapers. *Newspaper Research Journal*, 15, 87~97.
- Rakow, L. F. (1986). Rethinking gender research in communication. *Journal of Communication*, 36, 11~26.
- Rodgers, S. & Thorson, E. (2003). A socialization perspective on male and female reporting. *Journal of Communication*, 53, 658~675.
- Shomaker, P. J., & Reese, S. D. (1996). *Mediating the message: Theories of influence on mass media contents*. NY: Longman.
- Shoemaker, P. J. (1991). *Gatekeeping*. Newbury Park, CA: Sage.
- Sigal, L. V. (1973). *Reporters and officials: The organization and policies of newsmaking*. Lexington, MA: D.C. Heath and Company.
- Silver, D. (1986). A comparison of newspaper coverage of male and female officials in Michigan. *Journalism Quarterly*, 63, 144~149.
- Tuchman, G. (1978). *Making news: A study in the construction of reality*. New York: Free Press.
- Tuchman, G. Daniels, A., & Benet, J. (1978). *Hearth and home: Images of women in the mass medi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Van Zoonen, L. (1988). Rethinking women and the news. *European Journal of Communication*, 2, 35~53.
- _____. (1994). *Feminist Media Studies*. London: Sage.
- Whitlow, S. S. (1977). How male and female gatekeepers respond to news stories of women. *Journalism Quarterly*, 54, 573~579

- Yang, M. (1996). Women's pages or people's pages: The production of news for women in the Washington Post in the 1950s.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3, 364~378.
- Ziegler, D. & White, A. (1990). Women and minorities on television: An examination of correspondents & newsmakers.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33, 159~174.
- Zoch, L. M. & Turk J. V. (1998). Women making news: Gender as a variable in source selection and use.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5, 762~775.

(최초 투고 2004. 12. 1, 최종원고 제출일 2005. 4. 4)

Coverage Difference of Female Newsmakers among National Newspapers

Influences of Journalist Gender and Gender Ratio in the Newsroom

Kyungmo Kim

Professor

(Department of Communication, Yonsei University)

Youn-Jung Kim

MA.

(Department of Communication, Yonsei University)

This article examines the influences of journalist gender and gender ratio in the newsroom on news coverage of women among three national newspapers in Korea. Results reveal that female reporters describe women newsmakers in greater length, of more diversity in occupations, and of more positive pattern than their colleagues, male reporters do. The newspaper employing more female reporters also covers female newsmakers with less personal information, of more diversity in occupations, and of more positive pattern. It is suggested that increase of female reporters in the newsroom induce male reporters to cover women newsmakers toward a pro-female attitude. Lastly, the relation of the gender ratio variation in the news organization and news coverage of women is discussed.

Keywords: journalist gender, gender ratio, interaction of gender and gender ratio, news coverage of women